

열린신문

Yullin Newsletter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Yullin Newsletter>는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의 <열린신문> 코너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말씀술루선

더 많은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때로는 한 자녀의 부모 된 것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으리만치 자식이 잘못하는 적도 있지만 그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을 거닐며 들꽃이나 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절망의 바다 벼랑 끝에 세우기도 하시고 아무 도움이 없는 바다를 뒤로 하고 질풍노도처럼 밀려오는 원수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위기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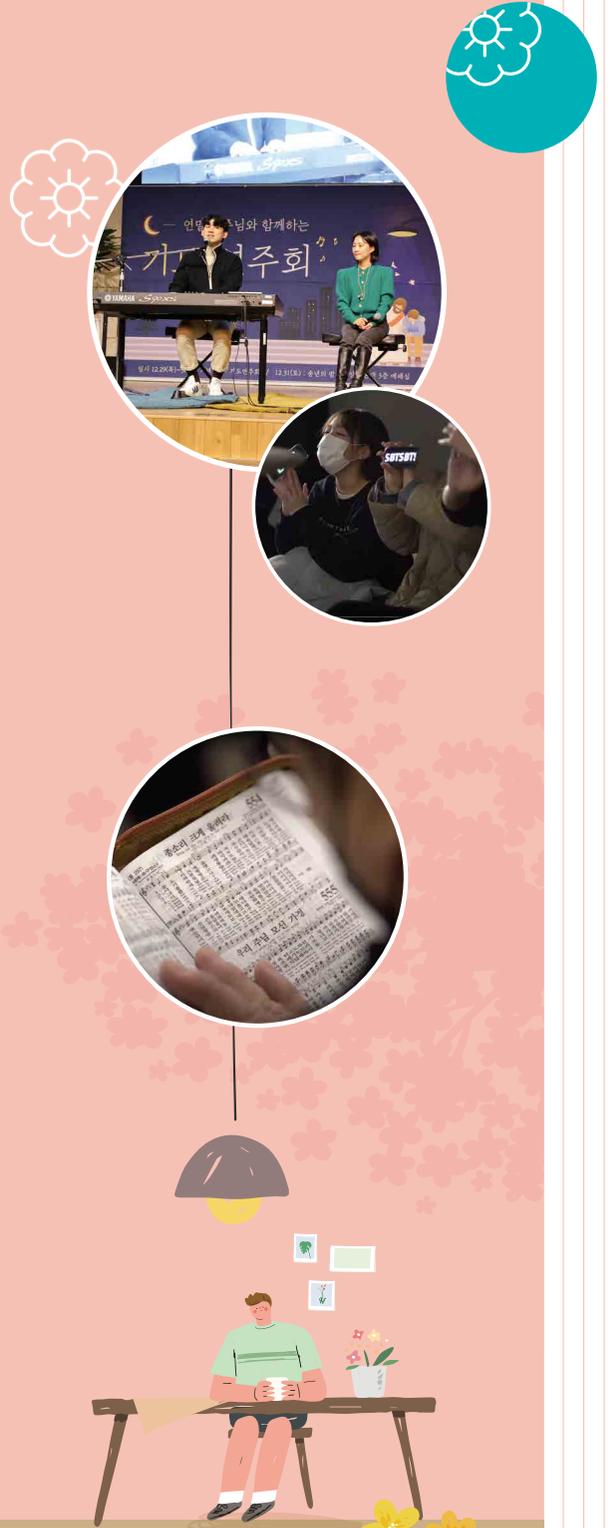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이고 그 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뿌리가 깊습니다. 이런 부패성과 죄는 경건한 삶을 이어가는 신자들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성은 그들의 타고난 성품과 기질을 특별히 활용해서 그 갈피갈피에 끼어 있으니 그것이 자기와 하나 되어서 좀처럼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상적인 예배와 규칙적인 기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습 등 모든 은혜의 영향력을 피하고 살아남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더 순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하던 하늘에 속했던 것과 같은 아름다운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치열한 불에 의해서 달구어지고 제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가난을 통해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자신의 밀도 끝도 없는 부패한 성품의 바닥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셔서 순결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합니다. 더 많이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더 많이 우리도 몰랐던 밑바닥이 드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걸 사람은 후패 하지만 우리를 시험하시고 새롭게 단련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속 사람은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연단하시는 하나님> 설교시리즈 중에서

(본 시리즈는 정금 갈게 하는 연단/은을 단련함 같이/달콤한 연단/연단을 이루는 인내/복 주시려고/온전해진 자의 섬김을 받으심/온전해진 삶과 연단 된 마음/연단과 충성/연단중의 즐거움/연단과 의뢰/연단과 믿음/연단과 성품의 변화 12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고난의 때를 보낼 때



김남준 담임목사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시 31:14-16)

들어가는 말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시의 연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다윗의 생애 후기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무리의 비방이 있었고, 사방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시인의 생명은 시시각각으로 위협받고 있었습니다(13절). 그런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친구들도 놀랐으며, 길에서 보는 자들도 피해 갔습니다(11절). 그러니 그가 당한 시련이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새롭게 고백하라

본문은 고난의 날을 보낼 때 시인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새롭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은 어두운 현실이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염려 때문에 시인의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 새롭게 고백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14절).

이 고백은 처음 드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고백 속에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니, 이전에도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시련의 때에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시인은 특별한 어둠의 때를 지나고 있었으나, 아주 평범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고백한다고 할지

라도 주님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 대해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오래 묵은 고백을 주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백의 힘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메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이 홀로 우주공간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날에, 묵었던 옛 고백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의지하라

둘째로, 새롭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새롭게 고백을 드리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절대적인 의존의 감정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시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비관적이어도 자신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15절).

눈앞에 전개된 현실을 보면 미래의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변할지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던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시련과 고난의 날에 자비를 보여주셨는지를 상기하였습니다.

시인은 예전에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새롭게 결단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염려와 근심으로 지쳐버린 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소망이 가져다준 고백이었습니다.

인간은 시련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로 버려졌다는 고립감 때문에 침체에 빠집니다. 신자도 고통을 겪을 때 고립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시련을 만났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 마음 안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간구하라

셋째로, 새롭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많은 시련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은 일찍이 겪어본 적이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시인도 우리와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었기에 본성의 죄가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믿음의 증인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찾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자기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해 주시도록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이 시련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데려가달라고 구했습니다. “주



특별한 어둠의 때를 지날 때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지 말아야

“주는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새롭게 하고

앞날을 주의 손에 의지하며
이전보다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간구하여야

환경을 보며 흠어지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시련 중에서 믿음을 입증하여야



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16절).

시인은 주의 얼굴을 자신에게 비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면하시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인에게 특별한 심판을 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후자는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신자는 그 복을 통해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하늘 자원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골 1:11). 많은 시련과 고통을 만나지만 거기서 낙심하여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고, 기쁨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도 때로는 고난의 날을 지나게 하십니다. 고난의 날에는 언제나 물결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은 우리에게 전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당신의 품으로 피하는 사람에게 시련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물결치는 현실에 마음까지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시로 흠어지려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기도 속에서 고요히 하나님 한 분을 대면하십시오. 간절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시련을 겪기 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은혜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더욱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맺는말

신자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 입증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신앙의 방식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은혜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다독거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간절한 기도로 능히 시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

담임목사 동정

- 1. 30.-2. 2. 라오스 선교지 방문
- 2. 5. 저자서인회, 구역장 공과 강의
- 2. 18. 새가족위원 일꾼세미나
- 2. 19. 구역장 공과 강의
- 2. 21. 사모영성세미나 강의
- 2. 26. 청년부 북 콘서트

라디오 설교방송

- 서울기독교방송(FM 98.1MHz)
금요일 오후 9시 30분 '라디오 강단'
- 서울극동방송(FM 106.9MHz)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오후의 기쁨'
- 대전극동방송(FM 93.3MHz)
주일 오후 4시 '여호와와 나의 목자'
- 포항극동방송(FM 90.3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오늘의 양식'
- 울산 극동방송(FM 107.3MHz)
목요일 오전 6시 '참된 삶을 향하여'
- 창원극동방송(FM 92.5MHz)
화요일 오전 6시 30분 '오직 복음으로'
- 전북극동방송(FM 91.1MHz)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세상을 향한 한주의 시작'
- 전남극동방송(FM 97.5MHz)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은혜의 강가로'

인터넷 설교방송

- 극동방송(대전, 포항, 울산, 창원) <http://www.febc.net>

2023 교회학교 섬김조직

회심과 회심의 보존



박재현 교회학교 디렉터
revjhpark@icloud.com

열린교회가 1993년 12월 12일에 설립되면서 열린교회 교회학교는 같은 달 성탄절에 시작되었고, 한 주 뒤인 1994년 1월 첫 주에 교회학교 전임 교역자가 부임하였습니다. 가장 어린 4세부터 초등학교까지 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이후 30년째를 맞고 있는 열린교회 교회학교의 교육 목표는 회심과 회심의 보존입니다. 회심은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심의 경험이 없다면, 모인 아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고, 교육의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너무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한 번 회심했다고 해서 그 회심의 은혜가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은혜에서 멀어지면, 금방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회심뿐만 아니라, 회심한 자녀들이 그 회심의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학교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교회학교의 연간 사역은 이러한 교육 목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간 사역을 보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러 사역이 새롭게 추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향점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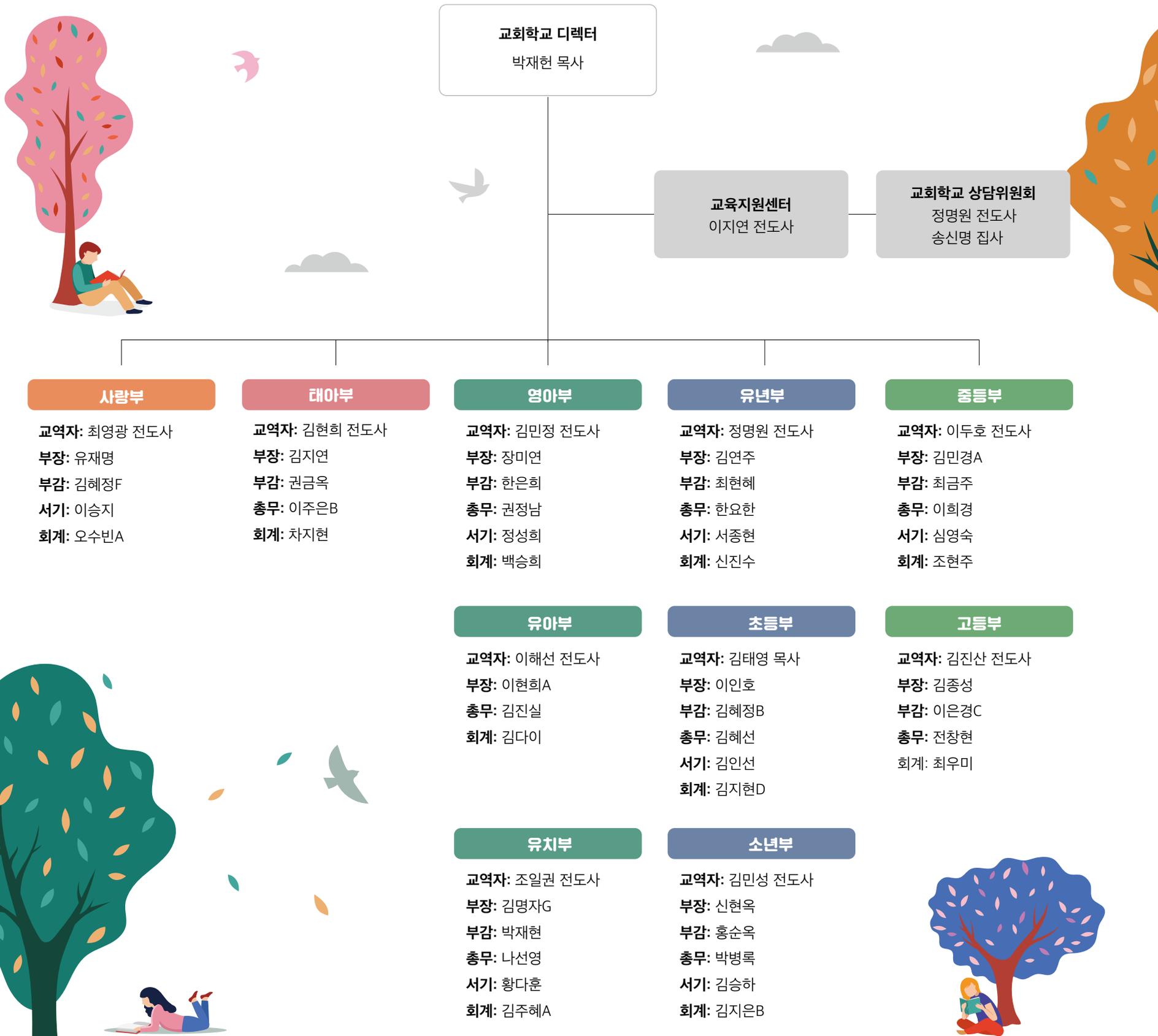
1월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새해말씀사경회와 대심방, 2월 청소년 겨울수련회, 3월에 시작되는 여러 교회학

교 교육들, 4월 회심집회, 7월 여름성경학교 및 청소년 여름수련회, 8월 여름캠프, 9월 청소년 열띠편캠프 및 각종 교회학교 교육들, 10월 교회학교 가을말씀사경회 등 모든 교회학교 사역의 목표는 결국 자녀들이 회심하고, 회심한 자녀들이 회심의 은혜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열린교회 교회학교 안에는 10개 부서가 있습니다. 영아부(12개월~3세), 유아부(4~5세), 유치부(6~7세), 유년부(초등학교 1~2학년), 초등부(초등학교 3~4학년), 소년부(초등학교 5~6학년), 중등부(중학교 1~3학년), 고등부(고등학교 1~3학년), 그리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한 사랑부, 이렇게 총 10개 부서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센터와 교회학교 상담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지원센터는 교사교육 및 세빛교실, 등불학교, 등대학교, 테마학교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상담위원회는 상담이 필요한 자녀들을 목양하는 교사들을 코칭하고, 필요에 따라 자녀들을 전문 상담원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각 부서의 사역들이 잘 이루어져 열매를 총만하게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교회학교를 섬기게 될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



새해말씀사경회 취재

내 존재가 최고의 선교



회개하지 않는 두 가지 죄-

게으름과 미워하는 죄... 금번 사경회 설교에서 담임목사님은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셨다. 기독교인으로서 심각하게 여기지도, 잘 회개하지도 않는 두 가지 죄가 있다. 시간을 허비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목자의 마음-

“자, 다들 일어나세요!” 언제부터인가 사경회가 시작되는 주일예배 마치기 전, 담임목사님은 모든 성도를 일으켜 세운다. “수술, 해외출장 등 긴급한 상황이 있는 분 빼고... 하루는 꼭 나올 수 있지요? 못 나오실 분은 자리에 앉으세요!” 목사님도 성도들도 함박웃음을 짓는다. 그리고 자리에 앉은 분은 거의 없다. 좋은 것을 양들에게 주길 원하는 목자의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리고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예배당은 사경회 시작 한참 전부터 달려온 성도들로 빠르게 채워진다. 연초지만 어느새 자신 안에 가라앉아 있던 말씀이 힘차게 자신을 휘몰아치길 바라는 기대감이다.

하나님사랑과 형제사랑은 분리되지 않는다

사경회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새벽과 저녁으로

진행되었다.

새벽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심’, ‘혈루병자를 고치심’, ‘나병환자를 고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다. 사람(하인)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병 치유만이 아니라 여인에게 ‘딸’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호칭을 사용하신 예수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활을 걸고 예수께 나아온 나병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저녁 사경회에서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선포되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사랑을 내리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었다.

둘째 날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들었다. ‘너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아담의 고백이 인류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교회가 그 맛보기가 되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등대 역할을 하기 원하시기에 우리 각인을 부르셨고, 우리는 숨길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흘러 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진정한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 인간이 두려움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 존재가 최고의 선교-

사경회 마지막 날에 담임목사님은 의미심장한 과제를 우리에게 주었다. ‘내 존재가 최고의 선교’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천적 무신론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라도 나와 전혀 다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진 이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문득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 나오는 말이 떠오른다. “인류를 사랑하기는 쉬워도 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 렷싸한 구호만으로 슬쩍 넘어갈 수 없다. 실질적인 사랑을 요구한다. ‘내 존재가 최고의 선교’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 없이 형제사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취재: 신미숙 기자 pacific1009@naver.com

새해말씀사경회 후기

죄와의 고별을 선언하다



이상아 장년1교구
jonhethrone@gmail.com

나는 가정을 꾸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따금씩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다. 회사에 있으면 살바도르 달리의 시계와 같이 시간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아 초조했고, 이게 최선인가? 하는 물음을 던졌다. 눈앞에 일회용 관계들과 이미지들이 넘쳐났고, 세상 소멸의 징조라도 보이면 왜인지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다가오는 허무를 쫓아내고자 성경을 약처럼 복용했다. 애써 불안함을 감추고 이제 막 장사를 시작한 남편 앞에서는 행복하고 지조 있는 아내로서 단단한 믿음을 심어주려 더욱 노력했다. 잘될 것이라 되뇌며 2배로 뽀뽀 난방비와 전기요금 고지서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질 무렵이었다.

정확히 5시 정각, 동편마을 단지 앞에 멈춰선 유선형의 희디 흰 SUV. 사흘간 새벽사경회에 나를 태우러 오신 구역장님의 공헌만큼이나 단단했고 눈부셨다. 그렇게 연 차 문은 마치 다른 적막한 세상으로 향하는 옷장 같았다. 피곤함과 무력감을 이기지 못한 영혼이 저녁 모기 떼처럼 엉뚱대다 예배당 앞에 털썩, 하나님 사랑의 선포 앞에 차분히 내려앉는다.

사경회 첫날, 아들의 옥체를 깨뜨린 하나님 사랑에 공감하는 자만이 사람을 향해 동심원처럼 뻗어나가는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말씀의 확신과 함께 그 사랑을 소유한 백부장의 마음에 예수님도 그만 스르르 녹아내리셨다. 그런 그의 사랑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타인을 향해 있었기에 더욱 큰 용기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었다. 동시에 여전히 남보나 나를 아껴 몸을 사리는 나의 모습,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나의 전부를 걸고 싶어하

지 않는 모순적인 자아를 마주했다. 지상자원의 결핍을 전부로 여겨 이리저리한 핑계를 대며 I CAN'T를 외쳤던, 두려움에 떨던 연약한 자아를 발견했다. 나는 흐느끼는 성도들 틈에 함께 흐느끼고 흘러 하나님 앞으로 밀려갔고 하인을 살린 백부장의 믿음과 사랑을 간구했다. 사경회 홍보지를 꽃았던 이웃의 호실들을 불러가며 간절한 기도도 나왔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리길 원하셨던 사랑의 신비로운 비밀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보게 하셨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품게 하셨다.

사경회가 깊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방점을 찍었다. 그때엔 두 손에 힘이 솟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주신 의지와 믿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바꿔보자. 나를 잡아주는 이의 단단한 손을 믿고 내가 붙잡고 있던 튼튼한 공중그네에서 손을 떼어 우아한 반원을 그리며 비행해보자. 세상에서 안정감을 주는 것들, 물질과 권력, 그따위 것들에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속에 진입하여 생명의 질서 안에 요동치지 않는 고요하고도 단호한 삶을 살아보자 결단하였다.

이제는 다시 옷장 문을 열었다. 사경회의 은혜를 지속시키며, 옥체의 껍질에 숨어 과거의 시간에 포박된 채 나를 감아먹고 공격하는 죄와 고별하겠다. 말씀을 먹어 ‘전투력’을 충전하고 사랑없음, 나태, 교만, 열등감, 무기력이라는 ‘몬스터’들을 푹푹 묶어 정든 추억의 노래를 부르고 소각시키고야 말겠다.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며, 그와의 연합을 주변의 관계 속에 구현해내겠다.

두려운 앞날 용기를 내어 / 우리 걸어가리라 / 눈물을 삼켜 한숨을 지워 / 다시 걸어가리라 <영웅>의 가사와 같이 슬픔으로 절어져 소금냄새가 났던 몸을 사랑이라는 향기로 거품내어 갈아입고 세상에 나아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고 후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열린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나타내라 하신 사랑을 이해하고 펼치며, 그를 위해 희생하고 도전할 줄 아는 리더십을 갖게 되길 원한다. ☆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문화콘서트 후기

열띤들, 빛을 발하라



오지우 고등부 2학년



2022년의 끝을 앞두고 고등부에서 처음으로 문화콘서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콘서트는 1부와 2부로 나뉘며, 1부는 '열띤(teen)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고등부 지체들과 선생님의 공연이 주를 이루었고 2부에서는 '청소년이 묻고 목사님이 답하다'를 줄여 '청문목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목사님과 Q&A를 진행했습니다.

1부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문화 공연이 있었습니다. 오프닝 무대는 '오우오우'팀의 멋진 밴드 공연으로 시작되어 찬양의 즐거움과 문화콘서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1학년 백두현 학생의 매력적인 트럼펫 독주와 장소원 학생의 멋진 독창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공연인 B.T.S(Best Teacher Sound)는 평소 선생님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1학년 1반 친구들의 무대로 끝을 맺었는데, 선물을 나눠주며 서로 축복해주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1부의 첫 순서인 찬양팀 공연을 악기로 함께했고 특별히 이 행사의 진행자로 행사를 즐기게 되었는데, 처음

에 제안받았을 때는 제가 잘할 수 있는지 걱정이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진행자를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일이 여전히 당시 저에게 정말 긴장되는 일이라서 실수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매주 기도회에 나와 기도로 문화콘서트를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긴장은 기대로 바뀌어주고 실수보다는 다 함께 즐기자는 마음으로 참여하자고 생각하니 오히려 즐거운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문화콘서트는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즐거웠고 진행자를 맡은 것도 후회되지 않고 오히려 뿌듯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특히 청문목답 시간에 목사님께서 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균형을 같이 말씀해주시면서 해주신 현실적인 조언들과 해결책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이돌 덕질하는 것, 유튜브 및 미디어 중독 등의 주제로 세부적으로 일상에서 겪는 질문과 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등부에서 첫 문화콘서트를 마치고 나서 이 시간을 돌아보니 저는 특별히 이번 문화콘서트에서 뜻하지 않게 다양한 역할들을 맡게 되어 더욱 은혜롭고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찬양팀 공연을 즐겁게 형 누나들과 같이 연습하며, 처음으로 진행자 역할도 맡아 수시로 연습해 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니 저에게 큰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1부에서는 모두 함께 찬양의 즐거움을 누리고, 2부에서는 우리의 궁금증을 담임목사님께서 풀어주시며 동시에 실현 가능한 해결책까지 말씀해주시니 저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어서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문화콘서트는 특히 하우스위십 형태로 고등부실을 새롭게 꾸며 준비했는데 이를 직접 하나하나 애쓰시며 꾸며주신 선생님들과, 한마음으로 문화콘서트를 즐겨준 고등부 지체들, 그리고 저희의 질문들에 명쾌하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신 담임목사님까지, 이 문화콘서트를 위해 준비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준비와 행사 가운데서도, 지금도 저희 모두와 함께하시는,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기도연주회&송년의밤 후기

교회와 함께한 마무리와 시작



크리스마스의 뜨거웠던 기운이 채 가시기 전에, 세상은 온통 연말 분위기로 들쭉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열린교회의 많은 청년은 또 한 번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한 해를 보내기 위한 기도연주회와 송년의 밤에 참석하였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의 기도연주회에서 청년들의 온전한 찬양과 뜨거운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열던 찬양과는 다르게, 온전히 찬양팀의 주도로 청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며 기쁘게 찬양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귀한 사역을 해주시는 찬양팀 멤버들이 이번 기도연주회를 위해 모인 것을 보고 청년의 자유함을 느끼며 한없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이후 설교에서는 첫째 날에는 명성인 목사님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의 연결고리를 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 전해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박철웅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는 '임마누엘'이 얼마나 우



강종원 청년부
kjwon9505@gmail.com

리에게 크고 든든한 의미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심을 깨닫고, 지난 한 해 제 모든 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31일에는 많은 분이 기다려왔던, 크리스천이라면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달빛마을' 부부가 특별 게스트로 기도연주회를 빛내주셨습니다. 늘 유튜브에서만 만났던 분들과 직접 마주하면서 찬양을 듣고 또 함께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연주회 내내 꿈만 같았습니다. 더 은혜였던 것은, 단순히 공연뿐만 아니라 두 분의 간증과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연주회를 이어갔던 것인데요. 마치 저희와 대화하는 것처럼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나누고 치유 받을 수 있는 따뜻하고도 풍성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고 세상의 의미로서 보내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은 너무나도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열린교회에서 송년의 밤을 통해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다음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든든함을 경험하며 누구보다도 따뜻한 연말을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좋은 때에 이런 귀한 자리로 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음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에 이뤄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깊이 소망하게 한 기도연주회와 송년의 밤이었습니다. ✨

2월 추천도서

디모데서에 반하다

한병수/도서출판다함

목회자는 교회에서, 성도는 세상에서 모두가 기독교 공직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후서는 기독교 공직자 매뉴얼로 가장 탁월하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개인적 공직자, 공동체적 공직자의 정체성과 자질

과 기능과 책임과 영광에 대해 총명한 설명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 기독교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사로운 종교인, 이기적인 종교집단 되지 말고 교회와 온 세상을 섬기라는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디모데인 것입니다. ... 목회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전후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뿐 아니라 세상의 목회자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교회와 세상 앞에 부름받은 기독교 공직자로서, 주님께 부름받은 공직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는지, 또한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어떤 일들을 실천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Daham Books)



토요(고시원)전도 후기

토요일, 남성전도 열리다



고시원, 하면 막연하게 공부하는 곳, 생활 공간이 좁은 곳 정도의 지식밖에는 없었습니다. 권경철 목사님의 권면으로 고시원 섬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시원 전도는 작년 새생명전도 학교 직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특별히 섬기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곳의 고시원 접촉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두 곳으로 확정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요 여리고전도로 치자면 두 곳이 거점 전도 스폿인 셈입니다.

제가 처음 방문한 A고시원은 한 칸으로 누우면 별로 공간이 없는 아주 비좁은 곳이었고 한 층에 10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취침 외에는 추가 활동이 불가능한 장소였습니다. 큰 도로 옆 고시원은 부자 고시원, 큰 도로에서 벗어난 고시원들은 대부분 매우 열악한 사람들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된다고 하는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곤고한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원래 외부에서 아무나 출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다행히 고시원 관계자분이 교회 권사님이시라 고시원 방문이 허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장님께서 저희 전도대원에게 숙박하는 회원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서 (전에 교회 다녔고..., 저 분은 불교도 이고... 등등)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년 성탄절 전야를 앞두고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섬김을 계획하였습니다. 교회 전도대원들이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셔서 도시락을 손수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고시원 각 방으로 가져다드리고, 열린교회 성탄절 전야 행사에 초대하는 섬김이었습니다. 60개의 도시락을 준비하여 차에 싣고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고시원 모든 방마다 도시락을 전해 드렸습니다. 모든 분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던 분들에게 도시락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초



성경열 장년3교구
nambuk61@nbsurgical.co.kr

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기로 약속하였던 네 분 중에 중국인 근로자분은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어 행사에 오지 못했지만 세 분이 오셔서 성탄절야행사에 함께해 주시는 기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분들은 이날 참석하여 어린이들의 율동과 찬양, 청년들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연극을 보고 가셨는데 이 경험을 계기로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를 희망해 봅니다.

더구나 이날 교회를 찾아주셨던 세 분 중 두 분은 이전에 전도대원의 전도로 한 번 열린교회에 오셨던 분들이어서 성탄절야 때 오신 것은 재방문이었으므로 이런 소망을 더 굳게 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고시원)전도의 일차적 목표는 두 고시원의 숙박객과 열린교회 전도대원을 일대일로 지정하여 지정된 숙박객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전도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매월 2회 (2주, 4주) 전도하고 있으며 두 팀으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B고시원은 박경갑 장로님이 팀장으로, A고시원은 제가 팀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각 팀마다 4명 정도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6~7명의 숙박객과 일대일 관계를 맺으며 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토요전도 중에 전도하는 대상자가 출타 중이거나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아파트, 시장 입구 등에서 전도지를 배포하여 전도하고 있습니다. 화요(여리고)전도가 여성 중심이라면, 토요(고시원)전도는 남성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섬김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거절의 두려움이 많았지만 늘 함께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함께할 동역자나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못거린 분들에게 토요전도는 언제나 문이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사랑부> 정수연

사경회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물건을 집착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을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



<유아부> 5세 조세아 학부모

새해말씀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참석하였습니다. 아이들로 인해 사경회를 참석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유아부 사경회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인데 잘 있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매일 사경회 같 것들을 기다리는 아이를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사경회 시간 은혜의 자리에 집중하게 해주신 선생님들 한분 한분의 섬김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저희도 그런 섬김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귀한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신 교회와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유년부> 2학년 주예진

이번 사경회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네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만나리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뿐인 길은 회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큰 물고기에게 잡혔지만 회개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노력할 것이고, 혹시 죄를 짓더라도 잘못된 일을 하나님께 고백할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고백하면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윗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다윗이 양을 돌볼 때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항상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순종의 길과 내 마음대로 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길은 그 순간은 좋아도 끝에는 후회하게 된대요.

제가 비록 죄를 많이 지었지만, 다음에도 꼭 사경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번 사경회는 기도시간이 길어져서 기도 많이 해서 좋았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만나고 찬양하고 더욱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저의 목표로 정하여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할게요. ☆



교회 소식

릴레이기도 헌신자모임

- 일시: 2월 1일(수) 오후 12:20
- 장소: 별관 2층 새가족실

<깊이 읽는 여덟 가지 복> 출간 기념 저자사인회

- 일시: 2월 5일 (주일) 10시와 12시 예배 후
- 장소: 열린카페

강단기도 헌신자모임

- 일시: 2월 8일(수) 오후 12:20
- 장소: 별관 2층 새가족실

교회학교 학부모세미나

학부모세미나가 2월 12일(주일) 오후 3시에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미취학부]

- 주제: 말씀 심는 부모
- 강사: 백은실 사모(말씀심는교회)
- 장소: 세빛빌딩 4층 고등부실
- 자녀돌봄: 세빛빌딩 3층 유치부실

[취학부]

- 주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 강사: 유경상 대표(CTC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 대표)
- 장소: 열린빌딩 1층 소년부실

[청소년부]

-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자녀 신앙교육
- 강사: 주경훈 목사(오류교회 교육디렉터/사단법인 꿈미소장)
- 장소: 열린빌딩 1층 중등부실

2월 주요사역

- 1일(수) 릴레이기도 헌신자 모임
- 5, 12, 19일(주일) 신학생과 일반 대학생을 위한 장학헌금
- 8일(수) 상반기 강단기도 헌신자 모임
- 12일(주일) 교회학교 학부모 세미나, 런던시티미션 세미나
- 16일(목) 노숙자 섬김의 날
- 18일(토) 새가족 위원 세미나
- 22일(수)-24일(금) 중등부 겨울수련회 및 회심집회
- 24일(금)-25일(토) 고등부 겨울수련회 및 회심집회
- 26일(주) <깊이 읽는 여덟가지 복> 북 콘서트(청년부)

교회학교 새해말씀사경회 후기

주님 만남으로 새해를 시작하다



<유치부> 7세 김도하 학부모

“엄마, 아빠! 저 사경회 가기 싫어요.” 이제 막 일곱 살 된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아직은 잘 따라다니며 예배드리고 있지만, 언젠가 머리가 크면 그런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은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찾아 왔습니다.

“도하야, 왜 사경회에 가기 싫은 거야?” 물음에, 이유도 잘 대지 못하고 싫다는 아이. 조금 더 마음을 들여다보니, 작년 말 몇 주 동안 성탄축하 연습과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와 새해 첫 주일까지 주말마다 여러 번 먼 거리를 오가며 힘들었던 기억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아직 회심하지 못한 아이들을 무리해서 데리고 다니는 부모의 욕심인가 싶어, 이번 사경회는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부부끼리만 다녀올까 생각해봤지만, 마침 사경회 기간에 딱 맞춰 다른 일정이 생기시는 바람에, 그런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은혜받는 것이 중요하니 일단 잘 구슬려서 가보자 하고, 네 식구가 모두 첫째 날 사경회에 참석했습니다.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묻습니다. “우리 내일은 뭐 해요?”, 흠칫, 약간 걱정하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응 내일도 사경회 와야지...” 그런데 뜻밖의 아이의 반응, “오예!”

그렇게 둘째, 셋째 날까지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 이제 사경회 끝이라고 하니 아쉽다며 다음에 또 오자는 아이. 무엇이 좋았냐고 물으니, 이번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다 좋았다는 대답입니다.

아이의 신앙을 잘 키워주고 싶지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자리로 데려다 주는 것뿐임을,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아이가 은혜받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커가며 신앙에 여러 도전을 받게 되지만, 이번 사경회를 생각하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려 합니다. 그저 아이들을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고, 기도도 은혜 부어주시기를 구할 뿐, 그 후의 역사는 선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키워가기를 다짐합니다. ☆



<초등부> 4학년 김예현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꼭 나가야만 했다. 그런데 교회에 다녀보니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내가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회심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는 건 시간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교회에 다닐 거라면 빨리 회심해서 다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작년 새해말씀사경회 때 언니가 회심을 했다. 회심한 언니는 안 하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다. 언니의 모습이 부러웠다. 그중에서도 내가 부러웠던 것은 마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게임도 좋아하고 가요도 좋아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속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생겨났다. 가요와 게임을 좋아하는 마음이 날 평생 지배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다. 그게 싫어서라도 빨리 회심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런데 중 작년 가을말씀사경회에서 회심을 경험하였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이번에는 꼭 회심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엄마와 기도도 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죄같이 느껴

져지지 않던 것들,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죄처럼 느껴졌다. 기도할 때는 내가 지은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못하는 날도 있지만 결심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2023년 새해가 되어 새해말씀사경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나 기대했는지 엄마에게 “새해 말씀사경회가 너무 기대돼요”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 사경회 첫째 날 기도하며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다. 목사님 말씀은 매일 매일 내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다. 예배 후에는 마지막까지 남아 기도했는데도 예배시간과 기도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매일 매일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게임과 가요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게임과 가요가 내 인생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고 싶어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왔다. 참 신기하다.

그렇게 기대했던 사경회를 보내며 나는 또 가을말씀사경회를 기다린다. ☆



<소년부> 6학년 김주은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일학교 예배를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학교에서 하는 회심집회, 여름성경학교, 사경회 등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것은 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새해말씀사경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셨고, 지금까지의 죄들을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고 다짐했지만, 집에 오면 또다시 바뀌지 않는 삶의 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틀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눈물 흘렸지만 변화가 없는 제 삶에 저는 이번 사경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경회 마지막 날인 만큼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와 말씀 읽기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사경회 마지막 날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크다고, 다른 우상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도 다름없는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고 있는 저 자신 때문에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또 두렵거나 불안할 때 언제나 함께 계셔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동안 저는 제 방식대로 불안함을 또 두려움을 잊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없이 내 만족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시간을 낭비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새해말씀사경회를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곰곰이 생각

기력이 없는 사람이 살아나려면

글·그림·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몸의 기력이 없는 사람은 늘 ‘힘’을 말합니다.



더 버틸 힘이 없어.
더 나갈 힘이 없다고!

영혼의 기력이 없는 사람은 늘 ‘마음’을 말합니다.



아직은 마음이 없네요.
요즘은 기도할 마음이 없으니
강요하지 마!

그러나
안 먹어도 생기는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영혼이 그걸 증명합니다.



‘아직’, ‘요즘’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안 먹어서 그렇단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
나게 하소서 (시편 119:25)

- 2023.1.29. 주일 설교를 들으며

2023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중등부

주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일시 2.22.(수) - 24.(금) 오후 7시30분
장소 열린빌딩 1층 중등부실

고등부

주제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일시 2.24.(금) - 25.(토) 오후 2시
2.26.(주일) 오전 10시, 오후 12시
장소 본관 3층 예배실(금~토)
세빛빌딩 4층 고등부실(주일)

만남 품은 열린교인

사건은 땅에서 일어나지만 의미는 하늘에서 규정된다

강민영 장년2교구
mignon5@daum.net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라면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없었던 저는 나이 서른이 넘어서야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부터 가정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 시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조금씩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힘과 의지로는 삶의 현실을 견딜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을 때, 1년 전부터 계속 교회 가자고 권유한 지인을 따라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러나 39살이 되어서야 회심을 하였습니다. 죄인으로 산 세월이 통곡하며 회개하였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함을 절실히 깨달아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수련회에 이어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가고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의 감격은 물리적 거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컸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한밤중에 기도하면서 우는 소리를 친정엄마가 우연히 들으시고 놀라 왜 우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아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그래 알았다, 그럼 이제 내가 교회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 곳의 교회를 다니는 딸이 걱정돼서 교회도 적당히 다녀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혀를 차시던 엄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는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고 세례받으시고 성경공부도 하시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저는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는 평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열린교회에서 믿음이 없었던 남편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담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저의 지나온 신앙 여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었고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놀리기도 하고 편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도 내 마음을 알게 될 날이 오겠지, 라고 속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 상황으로 접어 두었던 전도에 대한 열망도 열린교회에 오면서 이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전도모임과 기도회에 모두 기쁘게 참석하였는데 몇 년 전 친정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어 영혼구원을 위해 수요섬김기도회에 기도요청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놀랍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곧 교회에 가서 크리스마스에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평생 육의 사람으로 사셨던 아버지가 영의 세계에 눈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성장반과 교리반 공부까지 마쳤지만, 말씀이 깊게 뿌리내리지 못했고 믿음을 갖기 어려워했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한 예수님은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받고도 세례받는 것을 여러 번 미뤘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남편은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았고 10개월 투병 끝에 작년 1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투병하며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 애썼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라도 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 10월에 수술이 실패해서 가슴부터 신경이 마비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말씀을 듣는 중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졌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무엇을 걱정하겠느냐고,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남편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갔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지면에 다 기록하지 못할 마음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셨는데 시편 119편을 본문으로 하는 <나를 살리는 말씀> 설교 시리즈는 저에게 말씀을 통해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며 시인의 고백이 저의 고백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시119:54-55). 극심한 고난 중의 시인처럼 죽은 것 같은 저의 영혼을 살려내시고 그동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결코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었을 그 말씀들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힘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은 믿음으로 희망을 갖도록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라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선하시며 언제나 나를 말씀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만 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건은 땅에서 일어나지만 의미는 하늘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고난을 해석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들이 고난을 이길 힘이 되고 그 사랑으로 더욱 말씀을 지키며 인생의 어두운 밤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체득했던 시인처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고 빛 삼아 말씀에 저의 마음을 확정시켜 나아가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풍요 속에 기쁨진 마음으로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에, 고난을 통하여 주의 법을 배우게 하시고 고통을 능가하는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남준
- 시무장로** 김남근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 부목사** 김성구 박재현 김동기 이성도 류요한 박철웅 최성기 명성인 권경철 김태영
- 협동목사** 정창욱 김성진
- 강도사** 김수민
- 전도사** 광혜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이지연 이월순 정명원 김민성 김민정 김진산 최영광
- 교육전도사** 이두호 이해선 조일권

파송선교사

- A국:** 4units, **B국:** 1unit, **C국:** 1unit
- 말레이시아:** 양연식 & 전희선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우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환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주일오후예배		오후 4시 10분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새벽기도	1부	오전 5시 (별관 1층 교육실2)
	2부	오전 6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금요기도		오후 8시 (교구별 지정장소)
*사랑부 토요교실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2)
*소망교실		주일 오후 1시 (세빛빌딩 4층 소망부실)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 코로나19 감염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지 않고 있는 모임)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4번출구나 평촌역 3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15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